

##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趙基東  
한국노인복지회 회장

**지** 난해부터 우리는 IMF 지원체제의 경제한파로 인하여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빈곤노인,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와병노인, 그리고 노인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노인은 다른 이웃보다도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은 전통적으로 가족에 의해서 부양되어져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핵가족화와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하여 혼자 남게 되는 노인이 증가하는 반면 노인의 주부양자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하여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동양의 미덕이었던 가족생활의 붕괴는 노인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노인 인구는 급속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인구 증가에 따르는 노인문제에 대비하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이다. 유엔에서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선언한 이유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정부와 민간단체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극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세계노인의 해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인 노인의 자립성 유지 (Independence), 노인의 참여(Participation), 보

세계노인의 해를 기하여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홍보 및 범국민적 활동을 전개하여 노령화 시기를 대비하는 범 국가적 계획을 세우는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그리고 노인의 존엄성(Dignity)의 원칙을 실천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는 사회'(Towards a Society for All Ages)라는 주제 아래 유엔은 노인의 사회 참여와 세대간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가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원칙으로 반영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작년에 마카오에서 선언된 아·태지역 실천계획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적 지위, 노인과 가족, 건강과 영양, 주택·교통·환경, 소비자로서의 노인, 소득보장과 고용,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의 분야를 주요 관심부문으로 정하여서 국가적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노인의 복지와 노인의 사회 참여를 고양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한 이 시기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하여 이웃나라인 일본의 17.3%, 그리고 중국의 2.9%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올해에는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

둘째, 우리 나라 3백만 노인의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과를 노인복지국으로 승격해야 할 것이며, 노인 문제를 담당하는 연구인력을 대폭 증가시키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단기보호 사업을 확대하고, 방문간호 서비스, 노인용구의 지원, 영양식의 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부양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노인의 해를 기하여 날로 심각해 가는 노인문제에 대한 부각과 노인의 부양을 가족에 의존하는 과거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겠다. 정부와 민간기관, 학계, 종교단체, 그리고 세계노인의 해 한국조직 위원회 등 각계 각층이 협력하여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홍보 및 범국민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하여 올해를 노령화 시기를 대비하는 범국가적 계획을 세우는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